

대학도서관을 통한 대학생 독서 활성화 방안 연구

- 실천공동체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niversity students' Reading activation in the University Libraries

- A Case Study of Communities of Practice -

임수경,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sue1209@skku.edu

Su-Kyung Lim,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본 연구는 대학생의 독서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독서에 대한 대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실천공동체의 한 유형인 독서토론클럽을 제안한다. 그러기 위해서 혁신적인 실천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 공공도서관의 실천공동체의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대학도서관에 실천공동체 성공사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학도서관에서 실천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연결자(connector), 가이드(guide), 선생님(teacher), 대화상대(conversation partner)로서의 사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서론

독서는 급격한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우리는 독서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쌓고, 창의력 및 올바른 판단력과 비판력을 기르며, 개인의 가치관을 형성한다. 개인은 독서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에 눈을 뜨고, 보는 관점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사회 환경에서 부딪치게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대학생의 독서는 중요하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취업준비에 내몰려 성적관리나 스펙 쌓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영어공부나 취직공부에 시간을 할애하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독서보다는 영상매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대학생들의 독서량은 점점 줄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의 독서활성화 방안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대

학생의 독서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여러 독서문화프로그램 들을 제시하며, 독서에 대한 대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독서토론클럽을 제안한다. (이만수 2004; 이경민 2012; 한가숙 2014) 독서토론클럽은 특정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해당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집단인 실천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 CoP)의 한 유형으로, (Wenger, Synder 2000)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공공도서관의 실천공동체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는 있지만, 대학생의 독서활성화를 위한 실천공동체 사례 분석에 관한 국내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실천공동체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대학도서관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적 실천공동체를 운영

하고 있는 네덜란드 공공도서관의 실천공동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고, 대학생의 독서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학도서관에 사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실천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

2.1.1 실천공동체의 개념

실천공동체는 Lave와 Wenger가 1991년 “상황학습: 합법적 주변 참여”에서 언급한 개념으로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학습자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지식을 학습하는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전수환 2008) 실천공동체는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공유하면서, 구성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향상시켜나가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되며, (Wenger, Synder 2000) 공동체가 학습주제(domain)를 중심으로 모여 지속적인 상호작용(Community)을 바탕으로 학습과 토론을 통해 생성된 지식을 함께 실천(practice)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소연 2012)

2.1.2 실천공동체의 기본구조 및 특성

실천공동체로 명명되는 공동체에는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는 영역(domain), 공동체(community), 실천(practice)이라는 기본구조로, 실천공동체가 활동하고자 하는 주제 영역, 공동체의 형성, 실천의 창출 및 공유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비로소 실천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통된 관심사이자 주제를 나타내는 영역이다. 영역은 공동체 구성원 공통의 주제이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공통의 관심사에 따라 개별 주체들이 모인 집단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영역을 바탕으로 모인 개별 주체들이 형성하는 관계망으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동 활동과 토론에 참여하며 서로의 지식을 공유한다. (Wenger, 1998/2007; Wenger-Trayner, 2015; 전재영; 2012) 셋째, 공동체 구성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한 실천이다. 실천은 구성원들이 공동 영역을 중심으로 함께 개발하고 공유, 축적해온 유·무형의 지식(Knowledge)을 의미한다. 특정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정의된 일련의 일하는 방식으로서 그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접근방식, 행동, 문제해결, 의사소통의 토대가 되는 공유된 표준 사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최은희, 2009)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는 지점에서 <그림 1>과 같이 실천공동체가 성립한다.



<그림 1> 실천공동체의 구성요소
(최은희 2009; 전재영 2012, Wenger-Trayner 2015)

2.2 대학생 독서 활성화 방안 선행연구

이만수(2004)는 대학생의 독서 활성화 방안으로 대학도서관의 각종 독서 행사 개최, 독

서교육을 학과 교과목으로 채택, 필독도서목록 작성, 매체를 통한 독서교육 등을 제시한다. 이경민(2012)은 국내 대학도서관들의 독서행사가 일회성 독서 장려 운동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에서 기획하는 프로그램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대학생들에게 독서활동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독서토론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한가숙(2014)은 국내, 국외 대학도서관들의 독서 장려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고, 독서 장려를 위해 한남대학교 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자발적인 독서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으로 독서토론 모임을 제안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이 이용자와 소통하는 가운데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3 선행연구 분석

대학생의 독서진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은 대학생의 독서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리고 대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독서토론클럽을 제안한다. 독서토론클럽은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실천공동체의 한 유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독서 장려를 위해 네덜란드 공공도서관의 실천공동체 성공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대학도서관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3. 사례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의 노르트브라반트 공공도서관(Noord Oost Brabantse Bibliotheken)의 ‘충실한 독자’와 ‘위기 속의 지혜’라는 실천공동체 프로그램을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삼았

다. 노르트브라반트 공공도서관은 혁신적인 실천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으로, 위의 실천공동체 프로그램은 영역, 공동체, 실천이라는 실천공동체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도서관 밖에서도 자발적으로 모여 실천공동체가 운영되었고,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구성원들의 요청으로 프로그램이 지속된 실천공동체 성공사례이다.

사례 조사를 위해 해당 도서관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및 선행 연구, 해당 실천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서들의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4. 사례분석결과

4.1 위기 속의 지혜(Wisdom in time of crisis)

‘위기 속의 지혜’ 실천공동체는 도서관의 다양한 장서들을 통해 신용 경색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삶의 위기에 봉착한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돕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2013년 6월에 35세에서 75세 사이의 남성 2명과 여성 13명, 총 15명의 참가자로 이루어진 공동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며, 이 공동체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이 <인디펜던트>지에 발표한, 현대를 위한 10가지 덕목인 쾌활함, 공감, 인내심, 희생, 관대함, 유머감각, 자기 인식, 용서, 희망, 확신을 도서관의 장서와 연결하였다.

공동체 모임은 3주에 한번 월요일 오후에 열렸으며 두 명의 사서가 주재하였다. 사서는 10가지 미덕과 관련된 도서 목록을 만들고, 왜 이 내용이 각각의 미덕과 관련되는지를 설명하였으며, 참여자는 자신이 선택한 서적, 영화, 음악 등의 자원이 어떠한 미덕을 대표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다른 구성원들과 토론하였다. 모임이 끝난 후에도 구성원들은 인근 카페에 자발적으로 모여 인간의 삶과 지혜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2014년 1월 마지막 모임이 끝난 후, 구성원들은 도서관에 다음 시즌을 요청하였고 2014년 6월 'Wisdom of stories'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모임을 통해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과 10가지 덕목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자신의 지식을 새롭게 하며 견해를 넓힐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의 핵심은 장서와 공동체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사서의 역할이었다. 사서는 장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장서에 대한 맥락(context)을 제공하고, 구성원들이 장서를 읽고 대화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유도하였다.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있어 전체 과정을 계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천공동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과정 중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며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의 방향을 잡아주는 사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polderman et al 2014)

4.2 충실한 독자(Stalwart Readers)

‘충실한 독자’ 공동체는 2012년 9월부터 40명의 도서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당 1권의 논픽션 책을 읽는다. 구성원들은 30세에서 70세까지 다양하며, ‘우리 시대에 대한 이야기’, ‘사람 됨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의 세 가지 테마에 대해 사서가 선정한 도서목록에서 원하는 책을 선택하여 읽고, 매월 목요일 저녁에 도서관에서 만나 두 명의 사서의 주도하에 각자의 생각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도서목록은 논픽션을 전문으로 하는 사서가 만들며, 블로그를 만들어 목록에 있는 책에 대한 간략한 요약, 책의 인용문, 읽어야 하는

이유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충실한 독자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책을 읽는 전통적 독서 클럽과 달리 추천도서목록 중에 공동체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구성원 간에 소그룹으로 묶여 토론하거나 40명 전체가 함께 토론하는 등 구성원 간의 토론이 두드러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성원들은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토론을 통해 서로 영감을 얻었으며, 토론의 분위기는 활기차고 열정적이었다. 또한 매월 모임 후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 도서관에서 초청한 작가 혹은 철학자의 강연을 방문하였고 시간, 삶의 방식 등과 관련된 연극을 보러 다니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다음 시즌을 요청하였다.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이 공동체를 통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접하였고 새로운 의견들에 노출되었으며, 다른 테마로의 연결 고리를 발견하는 것을 배웠다. 또한 견해가 넓어지게 되었다.” 라고 말하였다. 2013년 9월 충실한

독자 2기가 시작되었고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하였으며 그들 중 대다수는 1년 전에 참가한 사람들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천공동체를 시작하고 이끌어 가는데 있어 도서관 사서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사서는 도서목록을 만들고, 블로그에 해당 목록에 있는 책들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이 책이 왜 충실한 독자의 세 가지 테마와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야하며 공동체 구성원의 흥미를 유도하여 장서와 공동체를 연결해야 한다. 또한 구성원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토론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야 한다. (polderman et al 2014)

다음 <표 1>은 실천공동체 사례를 비교한 것이다.

<표 1> 실천공동체 사례 비교

	위기 속의 지혜	충실한 독자
공동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총 15명의 참가자 · 3주마다 공동체 진행 (월요일) · 두 명의 사서가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총 40명의 참가자 · 매월 1회 공동체 진행 (목요일) · 두 명의 사서가 주제
영역(Dom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랭 드 보통의 10가지 덕목 (쾌활함, 공감, 인내심, 희생, 관대함, 유머감각, 자기인식, 용서, 희망, 확신)을 주제영역으로 하여 도서관의 장서와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시대, 사람 됨,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의 세 가지 테마를 주제영역으로 하여 도서관의 장서와 연결
공동체(Comm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경색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삶의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 15명으로 구성된 독서토론클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회원 40명으로 구성된 독서토론클럽
실천(Prac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랭 드 보통의 10가지 덕목과 관련된 서적, 영화, 음악을 선택하고 이 덕목에 관해 구성원들과 토론을 하며 지식과 생각을 공유 · 구성원들이 공동체 모임이 끝난 후에도 자발적으로 인근 카페에 모여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가지 테마와 관련해 사서가 추천한 도서목록 중 1권을 선택하여 읽고, 구성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영감을 얻음 · 매월 모임 후에 구성원들과 작가 혹은 철학자의 강의를 방문 · 시간, 삶의 방식과 관련된 연극을 보러감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종료 후, 구성원들은 프로그램의 지속을 요청 · 공동체 모임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고 견해를 넓혔으며 마음의 여유가 생겼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종료 후, 구성원들은 프로그램의 다음 시즌을 요청 · 독창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하며 새로운 의견들을 듣고, 다른 테마와 연결 고리를 발견하는 방법을 배웠고 견해가 넓어지게 됨

5. 연구결과

위에서 분석한 두 개의 공공도서관 실천공동체 사례를 통해 도서관이 단순히 공간과 장서를 제공하는 곳만이 아닌 사람과 정보를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기 위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polderman et al(2014)은 두 개의 실천공동체 프로그램의 목표가 구성원들이 도서관이 소장한 장서에 주목하게 하고, 사서 및 도서관 이용자가 장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생각

하고 극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실천공동체 프로그램 성공의 핵심은 사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사서의 역할은 연결자(connector), 가이드(guide), 선생님(teacher)으로 아래 <표 2>에 설명되어 있다.

첫째, 사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결자이다. 사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연결하고, 공동체 구성원과 도서관의 장서를 연결하며, 사서로서의 자신의 지식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식을 연결한다. 지식과 정보를 세상으로 가져와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연결시키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유도한다.

<표 2> 실천공동체에서의 사서의 역할

연결자(connector)	사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연결하고, 공동체 구성원과 도서관의 장서(collection)를 연결하며, 사서로서의 자신의 지식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식을 연결함
가이드(guide)	사서는 장서를 선택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장서의 맥락(context)을 제공함
선생님(teacher), 대화상대(conversation partner)	사서는 도서관 장서에 대한 지식,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지식, 관련 뉴스, 새로운 서적, 영화, 음악에 관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실천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지식을 전달함

둘째, 사서는 실천공동체 구성원의 가이드이다. 사서는 공동체 운영을 주도적으로 시작하고 가이드로서 장서를 선택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장서의 맥락(context)을 제공해야 하며, 장서에 대한 최신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혹은 도서관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책을 소개하고 흥미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사서는 실천공동체 구성원의 선생님이자 대화상대이다. 사서는 도서관 장서에 대한 지식,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지식, 관련 뉴스, 새로운 서적, 영화, 음악에 관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실천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한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구성원들과 대화해야 한다. (polderman et al 2014)

본 연구를 통해 도서관에서의 성공적인 실천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볼 수 있었고, 실천공동체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서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또한 대학도서관은 대학생들이 독서에 의미를 발견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내재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독서토론과 같은 실천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생들은 실천공동체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으며, 개인의 가치관과 논리를 확립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가치관의

형성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의 독서진흥을 위해 실천공동체 프로그램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실천공동체 사례를 국내 대학도서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실천공동체 사례 분석 및 국내 대학도서관의 자원과 인력 등 환경적 여건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도현. 2008. 교사들의 지식공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 실천공동체의 발달과정: 인디스쿨 사례연구. 『교육공학연구』. 24(2): 1-30.
- 노르트브라반트 공공도서관. [online] [cited 2017.06.09.] <<http://www.nobb.nl>>
- 박성우. 2016. 실행공동체 사례연구를 통한 공공도서관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339-358.
- 성실한독자. [online] [cited 2017.06.09.] <<http://lezersvanstavast.blogspot.kr/>>
- 이경민. 2012. 대학도서관에서 대학생 독서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161-181.
- 이만수. 2004. 대학생의 독서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 D대학교 신입생 독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1): 155-185.

- 이소연. 2012. 실천공동체(CoP)에 입각한 지역 사회교육운동 사례의 성과요인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8(3): 57-83.
- 이은철, 최문선. 2015. 국내의 실천공동체 (Community of Practice)연구 동향 분석 및 성공 요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3): 438-447.
- 전수환. 2008. 실행공동체를 통한 자발적 예술의 육성: 성남문화재단 사례. 『예술경영연구』. 13: 31-54.
- 전재영. 2012. 실천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의 의미와 도덕교육적 함의. 『한국초등교육』. 23(1): 75-93.
- 최미나, 유영만. 2003. 지식창출 및 공유전략으로서의 실행공동체(CoP: Communities of Practice)발전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9(4): 177-208.
- 최은희. 2009. 『공공부문 실천공동체(CoP) 활동의 전개과정 및 영향요인 탐색: A지방 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한가숙. 2014. 대학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사례 고찰: 한남대학교 도서관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사대도협회지』. 15: 1-22.
- Polderman, M et al. 2014. *Community building for public libraries in the 21st century: examples from The Netherlands*. [cited 2017.6.4.]
<https://www.ifla.org/files/assets/public-libraries/publications/community_building_for_public_libraries_in_the_21st_century_polderman_et_al.pdf>
- Wenger, E. 1998.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 identity. 손민호, 배을규 공역. 2007. 『지식창출의 사회생태학 실천공동체』. 서울: 학지사.
- Wenger, E., and Synder, W. 2000. "Communities of practice: The organizational frontier. *Harvard Business Review*", 78(1): 139-145.
- Wenger, E, McDermott, R, and Snyder, W. 2002. *Cultivating Communities of Practice: A Guide to Managing Knowledge*. Boston, Mass. :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Wenger-Trayner, Etienne and Beverly Wenger-Trayner, 2015. *Introduction to communities of practice*. [online] [cited 2017.05.11.]
<<http://wenger-trayner.com/introduction-to-communities-of-practice/>>